

2)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맛사, 또는 트리바에서 물이 터졌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건 초점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키우는 양치기로 40년을 살았던 경험이 있었기에 광야의 지리에 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샘물이 있고 어디에 풀이 자라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샘물이라고 해서 늘 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찾아갔다가 허탕을 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몇 군데 돌아다니다가 호렙산 반석 틈에서 나오는 특별한 샘물을 드디어 찾은 겁니다. 이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반석에서 물을 쏟아지게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신경질적인 반응에 대한 경고입니다.

3) 우리 주변에 온통 기적과 표적이 널려 있습니다. 보통 때는 다른 것들이 팔려서 못보다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매튜 폭스는 원복(original bless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직립 보행이 그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는 사람은 이 직립 보행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모릅니다. 유인원 중에서 호모 에렉투스(직립인)로 진화한 이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지구에 사는 많은 포유류 중에서 인간만 직립으로 걸읍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봄비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것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꽃 한 송이도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함께 예배한다는 사실도 표적이자 기적입니다. 밥 한 끼도 기적이자 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표적과 기적 아닌 것은 없습니다. 만물이 신비라는 뜻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 표적과 기적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4)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경험한다면, 그리고 안으로 한 걸음씩 깊이 들어간다면 생존이 위기를 느낄 정도로 마실 물이 떨어져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믿기 힘든가요? 아직 바닥으로 내려간 실제적인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찍이 억울하게 삶의 바닥으로 내려간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밑바닥에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3년 3월19일

사순절 넷째 주일
세계 교회력 「가」해 17주



대구성서아카데미에서
'새하늘'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회원이 3월11일 전남
광양 매화 마을에
가서 찍은 사진이다.

누가 알아주든 많은
상관없이 저 매화는
자기의 존재감을
구밈없이 그대로
드러낸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봄 햇살을 받으면서
생명의 힘에 자기를
온전히 맡긴 저 자세가
구원에 이른 자의
모습이리라.

자못 부럽다.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5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친교 5시-5시20분/공부모임 5시20분-6시
목사: 정용섭,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e/churchs>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린다.’(계 5:13)라는 요한의 진술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요한의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만물의 근원이며 미래이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 모두/ 일상을 멈추고 기쁨과 평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참된 능력과 신비를 소리높여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웃들에게 증언해야 할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들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이런 삶의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주십시오.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 (영광송) ... 다 함께



[알리는 말씀]

* 사순절- 부활절(4월9일) 전 토요일인 4월8일까지 사순절이 이어집니다. 사순절(四旬節)은 문자적으로 40일을 가리킵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40일은 예수께서 공생애 직전에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던 40일을 가리킵니다.

* 예배 후 데칼로그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 지난주일(3월12일) 헌금: 480,000원(주일헌금 100,000원 통장헌금 380,000원)
교회 온라인 통장: 카카오�뱅크 3333-14-2466417 박수진

* 3, 4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 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장소
3월26일	이춘우목사	윤혜정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이유선 /아트컬리지5
4월2일	정용섭목사	윤혜정(사회) 최선아(봉독)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박정덕 /시청각실
4월9일	이춘우목사	이기령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오미영 /아트컬리지5
4월16일	박재진목사	이유선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김희란 /아트컬리지5
4월23일	김동호목사	고중흥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이유선 /아트컬리지5
4월30일	이춘우목사	오미영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윤혜정,윤영위원 /아트컬리지5

지난주일(3월12일) 설교 발췌

제목: '르비딤' 광야에서 (출 17:1~7)

1) 모세의 설득으로 출애굽을 감행했고, 가나안에 들어갈 부푼 꿈을 안고 있었으나 지금 그들은 애굽에서 상상조차 못 했던 생존의 위기에 떨어졌습니다. 애굽에 넘쳐나던 먹을거리가 크게 부족했고,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출 16장에는 그 유명한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던 식물을 주식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 만나라도 먹고 광야 시절을 버텨보자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수르 광야의 마라에서 겪었던 물 문제가 여기 르비딤에서 다시 벌어진 겁니다. 나일강물을 펄펄 쓰던 그들이 더는 참기 힘들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출애굽 사건 자체를 부정하게 된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2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4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사순절 넷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진리와 참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니 일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더 나아가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생각과 결단은 자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볼 겨를이 없었고, 살피본다고 하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짐에 눌리기도 하고, 비현실적인 미래의 망상에 빠지기도 하며,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오늘의 수고와 책임을 외면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개인 참회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 선포

목사: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함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에 의지해서, 그리고 2천 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심한 마음으로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거룩 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상투스) ... 다 함께



*평화 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V. H. C. Fortunatus

이건용

♩ = 76

1. 귀타심수
2. 하는자난
3. 도목가하
4. 다에의신

심초구
자를무세
가받엇주
여고이께

나가주삼
무시를사
중쓰감찬
의고당송

나못하드
무박리리
여혀오고

그열물한
있구에몸
그리빠이
꽃을진룬

그저우성
열를리부
매때들성
에에을령

비피건항
길와저상
것물구경
이이원배

없초하합
도르시니
다니려다

귀땅피거
한과로룩
나바사하
무다신신

귀별방성
한과주-
못하로삼
이늘다위

귀모거영
한든룩원
짐죄하무
을를신궁

지셋심하
도도자시
다다가다

말씀예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읽히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허락해주시옵소. 참된 로고스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사무엘상 16:1~13 ... 박수진 집사

성시교독 시편 23:1~6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우리주님 목자시니 아쉬울것 전혀없네
-우리들을 풀밭으로 인도하여 누이시며
 맑고맑은 시냇가로 이끌어서 쉬게하네
-우리영혼 소생시켜 온몸생기 솟게하고
 주의이름 위하여서 의의길로 인도하네
-죽음골짜기 다닐때에 주님함께 하시오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신다네
-원수들이 보란듯이 상을차려 베푸시고
 기름부어 맞아주니 우리잔이 넘친다네
-주의선함 인자하심 평생토록 따르리니
-주의집에 살리로다 영원토록 살리로다

둘째말씀 에베소서 5:8~14 ... 박수진 집사

*셋째말씀 요한복음 9:35~41 ... 박수진 집사

*응답찬송 644장 (아멘) ... 다 함께

J. Stainer, 1870

아 멘 아 멘 아 멘 아 멘

아멘송

설교 **바리새인의 ‘죄’ 문제** ... 박재진 목사

설교 후 기도 ... 목사

찬송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1, 2, 4절 ... 다 함께